메트로 1월 22일 목요일 제3141호

동관아, 태양은 꽝이냐?

'오늘의 연애' 문채원 로맨틱 코미디로 변신 p/17

김승연 회장 장남 주도 태양광 사업 '먹구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라원 상무가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이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발 셰일가스 붐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유가마저 끝 모르게 떨어지면서 대체에너지 시장에 대한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과감한 판단에 따른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해왔다. 김 회장은 업계에서 M&A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만큼 성공적인 M&A를 통해 회사의 몸집을 불려왔다.

1981년 당시 29세였던 김 회장은 부친 고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의 뒤를 이어 회장에 오른 후 지속적인 M&A로 사세를 키웠다.

<2면에 계속>

/이정필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라원 상무

어린이집 CCTV 설치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 폭행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이 이를 예방하고자 실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셰일붐에 실적 밑바닥

한화그룹 미래 먹거리 전략에 치명타

<1면에서 계속>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화케미칼(구 한양화학·한국다우케미칼)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구 정아그룹 명성콘도) △한화갤러리아(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구 한양유통·동양백화점)와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등이 있다.

63빌딩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한화63시티는 재계에서도 성공적 M&A 사례로 꼽힌다.

1982년 김 회장은 향후 석유화학 시장의 발전을 확신하고 한양화학과 한국다우케미칼을 인수하면서 한화를 국내 10대 그룹에 편입시켰다. 1981년 7300억원 규모였던 그룹 매출이 1984년 2조1500억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후 한화케미칼은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리조트 업계 선두주자였던 정아그룹 명성콘도는 무리한 시설확장과 부실한 자산관리, 불법자금조달 등으로 파산에 정리절차를 개시했고 김 회장은 이를 1985년 인수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997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 단체급식,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레저기업으로 성장했다.

2002년 인수한 대한생명은 보험업계 2위로 그룹 전체 매출 비중의 50%를 담당할 정도의 규모가 됐다. 김 회장은 고용안정과 무배당 정책 등을 통해 인수 당시 누적손실(2조3000억원)을 6년 만에 해소하고 연간 이익 약 5000억원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처럼 김 회장은 탁월한 선견지명을 통해 지금의 한화그룹을 만들었지만 장남인 김 상무의 시장 관측 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받는다.

그가 28세 때 회사에 들어와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태양광 사업을 위해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의 인수를 주도한 것까지는 부친의 행보와 흡사하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진 셰일가스 혁신과 지속적인 유가하락은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상무가 2010년 4350억원에 인수한 한화솔라원은 2011년 2038억원, 2012년 2130억원, 2013년 728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지난해 역시 1분기 영업이익 40억원으로 3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가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68억원과 1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룹은 중국에 소재한 한화솔라원과 독일 한화큐셀을 합병하고 올해 매출 30억 달러에 이익률 6%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합병법인의 셀(태양전지의 핵심부품) 생산 규모가 3.28GW에 달해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과 SK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태양광 사업 전망을 현실파하고 이를 축소하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200MW 규모의 박막 태양전지 양산라인 구축에 나서지 않았다. 그룹 미래전략실 내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역시 2011년 인수한 미국의 태양광 전지 업체인 헬리오볼트에 대한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SK는 태양광 전지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택했지만 불투명한 전망에 유가하락과 수요부진, 중국산제품 공세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2월 헬리오볼트의 추가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이형렬기자 @metroseoul.co.kr

"日평화헌법 노벨평화상 추천"

여야 국회의원 142명 서명

여야 국회의원 142명이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 일본의 한 주부에게서 시작된 일본 평화헌법 지키기 운동이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21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에 여야 의원 14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서명 운동은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과 진영 의원, 새정치연합에서는 원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국제분쟁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켜야 한다"며 "일본과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국제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에서 '평화헌법 수호 서명운동'을 주도한 다카스 나오미(鷹巣直美)씨도 평화헌법 9조와 함께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인류 평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조직에 한정한다'는 노벨재단 규약에 따른 것이다. /조현정기자 jhj@

"김영란법, 언론인은 빼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자칫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인을 적용대상에서 빼자고 제언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김영란법 제정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까지 같은 의견을 내놓으면서 향후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이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며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을 2월국회로 미뤘다.

반면 새정치연합 정무위원들은 "법안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상임위간 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어 여당 내 입장 조율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인의 비리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 있는 다른 법제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적용 대상에)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해 논란을 자초한 만큼 헌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적용 범위 확대는) 당초 입법 취지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공직자와 언론 등 민간 부분에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법사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 및 타 법률과의 모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법사위의 소임으로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면 본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최영함서 '아덴만 여명작전' 4주년 기념식 2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내 최영함에서 '아덴만 여명작전' 4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당시 작전에 참가한 최영함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작은 사진은 대원들의 방탄헬멧에 부착된 국산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 '카이샷'으로 촬영된 것이다. /연합뉴스

北 "한미연합훈련 강행시 자위적 대응조치"

북한은 21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거듭 촉구하며 강행시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심사가 비르지 않은 자들의 고약한 행위'라는 글에서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 노력과 대세의 흐름에 맞게 최소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라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합동군사연습을 다시 강행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19일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을 계획대로 3월 초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방대한 핵전쟁 장비를 동원한 합동군사연습이 과연 방어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군사 훈련이 명백히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적 환경 보장은 시대의 절박한 과제'라는 글에서도 미국이 '북침 전쟁연습'을 중지하는 것이 남북 긴장완화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윤아기자 yoona19@

도로명주소 이어 동(洞) 통합… 줄줄 새는 혈세

간판·공무원명함·표찰 등 모두 바꿔야
겉도는 도로명주소 부작용 반복 우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도로명주소를 전면시행한 데 이어 올해 기초 행정조직인 읍·면·동도 통합할 계획이다.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밀어붙인 도로명주소가 막대한 예산낭비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다시 한 번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시·본청·일반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행자부가 이같이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할 경우 간판, 공무원명함, 표찰 등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작업이다. 박근혜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다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혈세 낭비의 반복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적인 규모라는 측면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로명주소의 경우 전면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자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구청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도로명주소를 몰라도 불편함이 없어 국민들이 굳이 새 주소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다.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으로 동명(洞名)이 부여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이 첫 손에 꼽힌다. 도로만 보고 길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동을 통합해도 기대했던 비효율 해소 효과 대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도로명주소는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행자부는 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혈세 낭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국민들도 새 주소의 편리성을 알면 금방 적응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읍·면·동을 통합한 뒤에도 행자부의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연말정산 대책 당정협의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난 민심에 놀란 새누리당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강도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위안부 모르쇠 일관하던 아베 총리 "인명은 소중"

일본인 인질 협박에 국제사회 공조 요청

일본 정부가 IS 인질 사태 수습에 국제 사회의 공조를 요청했다. 위안부 문제에는 모르쇠하던 아베 총리마저 '인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IS 추정 세력에 붙잡힌 인질 2명이 일본인 유카와 하루나(42)씨와 고토 겐지(47)씨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가족에게 영상을 확인시키고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두 인질이 "유카와 하루나씨와 고토 겐지씨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IS측이 일본인을 인질로 잡은 이유가 일본의 중동 지역 2억 달러 지원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스가 장관은 "우리나라가 행하는 지원은 중동 사람들의 민생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이다. 이슬람교도를 박해하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IS가 일본 인질범 동영상을 공개한 20일, 중동 순방 중이던 아베 총리는 인질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조기 귀국했다.

아베 총리는 "인질범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즉각 석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인명에 대한 협박은 용납하기 어렵다. 국제 사회는 단호하게 테러에 굴하지 않고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공조를 요청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최경환 백기(白旗)… 여당까지 압박

5월 소급 적용 추진… 출생공제 부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성난 민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여당까지 나서 압박한 결과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편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 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 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앞서 열린 새누리당의 연말정산 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에 지면 책임질 거냐며 친박(친박근혜)계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전면적인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이 공개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성난 민심에 힘입어 친박계가 굴복한 셈이다.

이날 당정이 긴급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조현정기자 jhj@

"외로운 늑대, 정보력 대응 불가능"

"테러단체 특히 외로운 늑대에 관한 한 정보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일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18)군과 관련해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파트)이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날 경찰은 김군 실종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군이 납치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군이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자발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테러단체나 극단주의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소외계층 청소년 등 취약인물의 사이버상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예방정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종합정보부이던 시절부터 해외정보 활동에 종사해 온 염 전 1차장의 말은 전혀 달랐다.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이른바 '외로운 늑대'와 같이 개인이나 소규모 테러단체의 활동을 정보력으로 감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염 전 1차장은 "미국도 알카에다 정도의 큰 조직에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며 "외로운 늑대에 대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IS가 인터넷 검열을 피하는 일대일 대화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김군은 전통 운동권도 아니고 정보기관의 감시범주 안에 들어 있는 인물도 아니다"며 "대북감시망에 주력해 온 우리 정보기관으로서는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오바마 '부자 증세'로 중산층 결집 승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국정 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 연설에서 경제 비전 밝혀… 북한 언급은 없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에 맞서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일명 부자 증세 승부수로 자기 대선을 향한 포석을 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오후 9시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국정 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를 강조했다. 자신의 최대 기반인 중산층을 앞세워 임기 말까지 자신의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비록 집권 민주당이 지난해 '11.4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상·하원을 모두 내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힘 있게 국정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지지 기반 중산층 잡기 나서

오바마 대통령은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종사할 것이냐"란 물음을 던진 뒤 "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계해 중산층 세금 인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연간 최대 7일간의 유급 병가 등 중산층 육성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필요한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가 소득에 비례하는 세금 납부를 피하지 못하도록 세금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누수를 방지하면서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에 15%에서 23.8%로 올린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8%로 다시 한번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며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걷는 등의 세제 개혁도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과 사이버 안보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 위협을 겨냥해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며 "사이버 위협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다만 소니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채윤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엘리베이터에 괴한이 있다면

metro Russia

시민영웅 찾기 프로젝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실시된 이색실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메트로 모스크바에 따르면 시민 단체인 보로다가 곤경에 담한 사람을 목격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메일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한 남성이 괴한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을 본 시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지를 보는 방식이다. 실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로다는 게보르그 오사리안과 세르게이 부질로프 등 배우들까지 투입했다.

이번 실험의 결과, 전체 피실험자 19명 중 57%인 11명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실험을 실시한 미국(33%)보다 높은 수치다.

특이 대부분의 남성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험에 참가했던 오사리안은 "실제로 일부 남성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엘리베이터 안에 뛰어들어 가해자를 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피하는 여성도 있었다.

/다리아 부마노바 기자·정리 이국명기자

뉴욕 햄버거 '세이크 섁' IPO 미국의 유기 패스트푸드 체인점 '세이크 섁(Shake Shack)'이 주당 14~16 달러 수준에서 500만주, 8000만 달러를 공모하는 형식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선다고 20일(현지시간)을 밝혔다. /AP 연합뉴스

'123456' 썼단 다 털린다

최악의 패스워드 1위

가장 유출되기 쉬운 비밀번호는 '1234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가토스에 본사를 둔 비밀번호 관리 솔루션 업체 스플래시데이터는 2014년 최악의 패스워드 25개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가준 패스워드를 포함한 계정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사례 300만건을 조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123456'과 'password'가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유출 비밀번호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3~7위는 각각 '12345', '12345678', 'qwerty', '234567890', '1234' 등 자판에서 연속으로 나오는 키를 누르는 조합이었고, '1234567'(11위)도 마찬가지였다.

똑같은 숫자를 여러 차례 누르는 경우인 '111111'(15위), '696969'(22위), '123123'(23위)도 유출되기 쉬운 비밀번호 상위권에 올랐다.

이밖에 운동 종목이나 스포츠팀 이름, 사람 이름, 네 자리로 된 1990년 전후의 출생년도 등이 많이 포함됐다.

스플래시데이터 측은 "흔한 비밀번호를 사용할수록 해커가 당신의 e메일이나 은행 계정에서 정보를 빼내기가 쉬워진다"고 설명하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을 권고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미국도 초등교사 폭행으로 부글부글

6세 어린이를 49m나 끌고 간 장면 보도

초등학교 여교사 폭행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여섯 살 어린이를 폭행한 뒤 49미터나 끌고 간 혐의로 해고됐던 해당 교사가 최근 복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CNN은 20일(현지시간) 켄터키주 불리트 카운티에 있는 브룩스 초등학교의 복도에서 있었던 여교사의 폭행 장면을 보도했다. 이 학교의 감시카메라가 잡은 화면에는 애슐리 실라스가 복도 바닥에 힘이 빠지는 어린이의 손목을 잡고 사무실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잡혔다. 1학년생으

/CNN제공

로 알려진 이 어린이가 끌려가는 동안 주위의 다른 교사와 학생들은 이 장면을 지켜만 봤다.

이 폭력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했다. 학교 측은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사를 곧바로 해고했다. 하지만 교사의 이의제기에 조사위원회는 해고 대신 7주 무급휴직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학교 측은 실라스의 복직을 원하지 않지만 조사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폭력을 당한 어린이 부모는 "당시 충격 때문에 아들이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불리트 카운티 검찰은 해당 교사를 4급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

금융위-금감원 협회 부회장직 놓고 '엇박자'

관련협회, 양 기관 사이서 '눈치보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협회의 '부회장'직 폐지를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관련 협회가 눈치보기에 고심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의 부회장직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오는 1·2·3월에 임기를 마치는 장상용 손보협회 부회장,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의 후임은 사라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와 금피아(금감원+마피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낙하산으로 진입해 왔던 금감원의 경우 내부 인사적체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관련협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단순히 관피아 논란으로 폐지되는 것은 옳지만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자 이들 협회는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당장 부회장 임기가 끝나는 손보협회의 경우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부회장직을 없애기로 했지만 '2인자'로 상근이사 또는 전무를 두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당분간 이 자리는 금

금융위원회가 관피아·금피아 논란으로 산하 협회의 부회장 직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규제를 받는 각종 금융협회들이 고민에 빠졌다. 신제윤(왼쪽)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뉴시스

석으로 둘 예정이다. 손보협회 입장에서는 금융위의 방침을 따라야 하지만 금감원의 눈치도 봐야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 남진웅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투협도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금융위·금감원에서 각각 부회장·자율규제위원장·본부장 1명을 선임해온 만큼 고심중이다.

관련 협회 관계자는 "금융업계 자체가 규제산업으로 감독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해당 협회들은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엇박자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현희기자 khyu8404@metroseoul.co.kr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1921.23	(+2.92)
코스닥	584.34	(+2.07)
금리	2.05	(+0.02)
환율	1084.00	(-3.00)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귀금속 도매상이나 은행권에 금을 공급하는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판매량은 2013년 704kg에서 지난해 1383kg으로 1년새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체크카드 추가 공제효과 '미미'

직장인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대부분 6000원 미만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직장인 92%(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나온 추정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했다.

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백아란기자

롯데마트 국내산 버섯 페스티벌 21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버섯과 버섯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해외여행 신용카드 결제시, 바가지 요금 주의"

지난 여름 휴가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A씨는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들렀다.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던 A씨는 종업원으로부터 추가 금액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수명의 종업원이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강압적으로 신용카드를 꺼내 긁은 후 서명을 요구해 결국 1만5000 위안(약 250만원)을 결제하고 말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호객꾼에 의한 바가지요금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한 '해외 여행 신용카드 결제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 중국과 일본 등을 여행하던 중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이겨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한 피해 사례는 모두 3건 접수됐다.

이들은 마사지 업체와 술집 등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모두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최고 900만원까지 바가지 요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다"며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 사용됐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진다.

특히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래 중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카드회사가 보상을 해준다.

또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 등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에 따라 카드회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숲테크의 대중화 골드바 판매 '불티'

작년 판매량 두배로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드바 판매가 대중화하고 있다.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다른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장기 투자자산으로 금을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귀금속 도매상이나 은행권에 금을 공급하는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판매량은 2013년 704kg에서 지난해 1383kg으로 1년새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 판매량이 무려 381kg에 달했다.

지난달보다는 못하지만 이달 판매량도 200kg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판매량은 2000kg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골드바 판매의 급증을 주도한 것은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투자였다.

지난해 가을까지는 시가 5000만원 상당인 1kg 골드바 판매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수개월 새 소액 골드바 판매가 급증해 지금은 37.5g(10돈)과 10g짜리 판매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37.5g 골드바의 가격은 200만원, 10g짜리는 50만원 가량으로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투자할 만한 금액이다. /김민지기자 mi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청계공감(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회장·발행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간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6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illegible]

"저유가시대, 코스닥 접근이 바람직"

금융가 사람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

검은 황금'으로 불리며 한때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석유. 그러나 이젠 그 말 마저 무색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제유가 하락 추세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44 달러를 찍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유가의 낙폭이 연일 확대되는 상황에서 바닥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사우디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낮은 유가 수준을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제유가 하락이 어느 수준에서 멈출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선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20 달러까지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의 원유 생산단가는 4~5 달러 수준이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사우디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낮은 유가 수준을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손진영기자

조 연구원은 "결국 사우디의 OPEC 국가들이 국제유가 하락시 감산을 통해 가격과 수익성을 통제하던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미국도 굳이 저유가 환경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저유가 상황이 자국의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저유가 현상을 긍정적인 변수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입장에서도 저유가는 분명 긍정적인 재료다. 그렇다면 국내외 증시에는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조 연구원은 "국제유가의 하락이 신흥국 자산에 대한 회피심리를 자극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러 정치적인 사안이 얽히면서 유가 하락이 곧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 확산이라는 명제와 거의 동일하게 간주된다는 것, 신흥지역의 산유국들도 언제든 악화라는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하에서의 물가 하락) 압력 부담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조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저유가가 중장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하다"면서도 "당장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국가들의 경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유가의 긍정적인 측면이 형성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일단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유가 급락 구간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까닭은 경기 둔화 우려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지기자 eunji@metroseoul.co.kr

"저성장 직면 국내은행, 신성장동력 확보해야"

금융硏 "수익성 개선위해 수수료 수익을 늘리고 비효율성을 제고"

저성장에 직면한 국내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해외은행을 벤치마킹 삼아 수수료 수익을 늘리고 비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은행산업의 수익성 추이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은행 수익성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신성장동력 확보 ▲수수료 수입 제고 ▲지리적 확장 모색 ▲할대 균형을 통한 비효율성 제고 등을 경영전략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2011년 28조2000억원 2012년 27조1000억원 2013년 24조3000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수수료 수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 수입 비중이 70%가 넘는 기타업무관련수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대고객수수료(송금수수료, CD/ATM 인출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수익증권판매수수료), 기타업무관련수수료(대출금조기상환수수료, 자산유동화관련수수료, 프로젝트 파이낸싱수수료, 지급보증료) 등으로 구성된다.

비중은 2013년 기준 대고객수수료 7.1%, 업무대행 수수료 21.0%, 기타업무관련수수료 71.8%다.

김 연구원은 "대고객수수료의 경우 수익 모델로 생각하기보다는 은행간 ATM 공동운영 등을 통해 비용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고객차별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업무대행수수료도 자본시장상품을 금융투자회사 자회사와 BWB 복합 점포 형태의 협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전문인력 확충과 지리적 확장 모색 등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김 연구원은 "외환과 파생 관련 이익 확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지점 형태의 해외영업 외에도 현지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등 다양한 진출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성장성과 NIM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역시 "세계화·디지털화 등 메가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와 ○○의 진출 등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현지화와 금융관련 FTA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하 회장은 또 "수익을 늘리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금융 등을 지원해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연구원은 "금융 산업의 성장을 위한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예컨대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의 경우 해외 주요국의 은행들이 독자 생존을 위해 IT업계와 인수제휴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전 세계 핀테크 투자 규모는 3배 이상 성장하는 등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그는 "국내 은행들도 고객들의 일상생활을 하나로 통합하고 새로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핀테크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이장영 금융연수원장, 김학주 국제금융센터원장 등이 참석했다. /채신화기자 afas1203@

"연말정산 캐시백 받아가세요" 롯데카드는 21일 연말정산시 최대 3%까지 롯데포인트로 돌려주는 '더 받는 프로젝트 2015 시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통신 요금과 보험료, 해외이용금액부터 생활밀착 업종인 교통비와 보험료까지 모두 6개 항목 연간 이용금액을 롯데포인트로 최고 9%, 45만원까지 돌려준다. /롯데카드 제공

"고객이 부르면 은행이 온다"

농협은행, 'NH태블릿브랜치' 진행

고객이 부르면 은행이 온다.

21일 NH농협은행은 외부에서 금융상품 상담과 신규가입이 가능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NH 태블릿브랜치'를 개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NH태블릿브랜치'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은행 직원이 직접 찾아가 태블릿PC로 금융상담과 전자서식 작성, 신분증 촬영 등을 지원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모바일 마케팅 서비스다.

이는 예금거래 신청서와 신용카드, 카드가맹점 신청서 등의 전자서식 작성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은행 지점에서 계좌개설과 카드심사 등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서비스는 현재 17개 농협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올해 안으로 200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태블릿브랜치는 외부마케팅과 창구 혼잡시 지점 안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금융신청서 체크카드, 펀드카드, 머니로 증권서비스 등도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주문참여 계좌수 3년 연속 감소

주문 참여계좌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식시장에서 주문 제출을 통해 투자에 참여하는 계좌(이하 주문 참여계좌)의 변동 추이를 분석, 21일 발표했다.

주문 참여계좌는 일정기간 중 거래소시장에서 주문(호가)을 1회 이상 제출한 계좌를 말한다.

주문 참여계좌수는 연도별로 2008년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388만개에 그쳤다.

개인 투자자가 전체 주문 참여계좌의 97%를 차지하는데 개인 투자자의 주문 참여계좌수가 꾸준히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개인의 주문 참여계좌수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1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해 2014년 기준 연간 377만개 수준을 보였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주문 참여계좌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14년 들어 감소세를 보여 각각 연간 5만7000개, 3만5000개 수준을 보였다. /박효진기자

부진 늪 농산물펀드, 반등할까

6개월 수익률 '지지부진' 투자적기 전망 무색
올해도 큰폭 반등 어렵다는 전문가 전망 많아

농산물 펀드의 수익률이 작황 호조에 올해도 수년째 부진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해 하반기 엘니뇨(열대 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로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컸었지만 실제 풍년으로 수확량이 급증하면서 예상이 빗나갔다.

시장에서는 올해도 작황이 양호한 가운데 당분간 지지부진한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1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농산물 펀드 9개는 최근 6개월간 평균 7.67%의 손실을 봤다.

삼성KODEX콩선물(H)특별자산상장지수[콩-파생]이 이 기간 10.63%로 가장 낙폭이 컸고 '미래에셋TIGER농산물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농산물-파생]'과 '신한BNPP포커스농산물자 1[재간접-파생](종류A1)' 등도 8.9%대 손실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한 펀드는 '미래에셋타겟플랜농산물40안정형[채권-재간접]'으로 최근 6개월간 -0.82%로 집계됐다.

농산물 펀드는 지난 2년여간 지속적인 수익률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농산물 펀드의 수익률이 바닥을 거듭하면서 저가매수 기회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여름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슈퍼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엘니뇨가 미미하게 발생하고 오히려 작황에 유리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풍년에 따른 수확량 급증으로 농산물 가격은 계속 하락했다.

다만 연초 수익률 개선이 나타나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들 펀드 9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평균 -3.19%로 연초 들어 손실을 줄이는 양상이다.

강유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미국의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10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가뭄 우려에 가격이 반등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농산물 펀드의 성과가 큰 폭으로 나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지난해와 같은 지지부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 연구원은 "농산물 가격이 최근 4년래 최저치로 워낙 낮아진 상황이므로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수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콩 가격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글로벌 콩 재고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침체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해외 헤지펀드들은 잇따라 콩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미국의 지난달 콩 수확량과 내수 비축량은 2006년 이래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달러가 오르는 구간에 있으므로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시장의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증권가, 저유가 시대 항공주 주목

새해 들어서도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항공주가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운송업체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지난 3개월간 무려 90.15%나 상승했고, 대한항공 주가도 '땅콩 회항' 사건에도 불구하고 석달 동안 15%나 증가했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면 유가에 민감한 항공사의 올해 실적 개선 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송업종 최선호주로 '아시아나항공'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만1000원으로 상향했다.

강 연구원은 "단거리 여객과 항공화물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요금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운임을 크게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운송업 관련 지표를 검토한 결과 한진해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주요 운송 업체의 영업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개선되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항공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올해 영업이익 급증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종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으로 '항공주'를 꼽았다.

박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하락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연간 유류비가 각각 3360억원, 1630억원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1680억원, 814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민지기자 minji@

한국투자증권 '자산 부자 건강 부자'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월 말까지 펀드 3종과 랩 5종, 신탁 1종 등 총 9종의 추천상품에 300만원 이상 가입하면 비타민 세트를 제공하는 '자산부자 건강부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 종료 후에는 가입금액에 따라 1억 이상 3억 미만 고객은 건강 견과류 세트를, 3억 이상은 정관장 홍삼세트를 증정한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유진 챔피언 원유 ETF랩 출시 유진투자증권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유진 챔피언 원유ETF 랩'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 원유펀드보다 원유 현물 가격의 추종 능력이 뛰어난 TIGER 원유선물 H ETF에 분산투자하며 자산운용사의 직접 운용을 통해 투자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유진투자증권 제공

주식매수청구대금, 전년비 80.5% 감소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청구대금이 전년 대비 8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4년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전년 대비 5322억원(80.5%) 감소했다.

같은 해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89사로 전년(93개사) 대비 4.3%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한진해운이 한진해운홀딩스에 합병하면서 720억원 지급했고, 유니온스틸이 동국제강에 흡수되면서 4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은 퓨얼셀파워가 두산으로 흡수되면서 260억원을 지급했고, 조이맥스가 링크투모로우를 합병하면서 5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31개사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영업 양수도 3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3개사, 부동산투자회사의 만기 연장 2개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법인이 45개사(50.6%), 코스닥시장법인 44개사(49.4%)를 차지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승리기자 pump@

재계 거목 정주영 명예회장 100주년

고(故) 정주영 회장의 '하면된다'는 불굴정신을 바탕으로 미국의 포드와 일본의 미쓰비시 등을 찾아가 변변한 시설 기반도 없이 설득해 제휴를 맺고 공장 건설을 추진한 것이 현대자그룹이 시초가 됐다. 1986년 미쓰비시자동차 구보 도미오 회장과 고 정주영 회장이 회담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사 굵직한 족적

정치·문화계 등 한국 현대사에 크게 기여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정주영 명예회장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어떻게 치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주영 회장은 1915년 11월25일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나 2001년 3월21일 타계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아직 탄생 100주년 행사가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지는 않으나 정주영 회장이 경제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 전체에도 굵직한 족적을 남긴 만큼 그의 생일을 전후해 현대가를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기념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이 몇 년 전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탄생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른 것에 비춰보면 현대가 역시 이에 못지않은 대규모 행사를 마련할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병철 회장의 탄생 100주년이던 2010년 2월 고인의 인간적인 면모와 경영성과를 강조하고 경제발전과 문예진흥에 대한 유지를 계승·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국제 학술포럼, 음악회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정주영 회장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3월 20일 열릴 예정인 정 회장의 제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3월 제사 때 일가가 모두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주영 회장 탄생 100주년 행사는 그의 10주기 추모행사 때처럼 장남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주도로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온 가족이 뜻을 모아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정몽준 전 의원은 지난해 정주영 회장의 13주기 제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주영 회장 탄생 100주년 행사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가족의 도리로서 잘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1년 열린 정 회장의 10주기 추모행사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추모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정 회장의 생애와 업적, 경제활동 등을 담은 추모 사진전과 추모 음악회 등으로 꾸며졌다.

정주영 회장이 각별한 인연을 맺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10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 회장은 1977년 4월부터 1987년 2월까지 회장을 5번 연임하며 전경련을 이끌었다.

/유승훈기자 fun@metroseoul.co.kr

이유일 쌍용차 사장 용퇴

"3월 주주총회서 대표이사직 물러날 것"

이유일(72·사진) 쌍용자동차 사장이 6년 만에 쌍용차 대표이사직에서 용퇴한다. 이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서울에서 열린 쌍용차 신차 티볼리 시승 행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3월 예정된 쌍용차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일 사장은 13일 개최된 티볼리 신차 발표회에서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강한 믿음을 표현한 바 있어 다시 한번 연임될 것이라는 사장의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마힌드라 회장은 당시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복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가 투자한 현지 경영진을 믿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며 "우리는 쌍용차를 법정관리에서 졸업시킨 이유일 사장과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통해 쌍용차가 재기에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북미법인 사장과 해외법인 사장 등을 역임하며 30년 동안 현대차에 몸담은 이유일 사장은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2009년 2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며 쌍용차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에 의해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뒤 현재까지 쌍용차를 이끌어 왔다.

이 사장은 "티볼리는 쌍용차가 마힌드라에 인수된 뒤 처음 선보이는 신차"라며 "티볼리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이 시점이야말로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기 적절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로서는 이제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하는 중대한 시기라 좀 더 젊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인물이 와서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용퇴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미 재작년 연임할 때부터 마힌드라 회장에게 올해는 대표이사직에서 반드시 물러날 것임을 누차 이야기했고,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마힌드라 회장도 이에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그러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회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고문이나 이사회 의장 등 또 다른 직책을 맡아 쌍용차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승훈기자

현대차 17.8km/ℓ '더 뉴 i30' 시판

친환경 디젤 엔진 적용으로 유로6 충족, 7단 DCT 및 ISG 탑재

현대자동차는 디젤 모델의 연비를 17.8km/ℓ까지 끌어올린 신형 i30(사진) 판매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가 새로 선보인 준중형 해치백 '더 뉴 i30'는 현대차의 차세대 디자인과 함께 신규 디젤 엔진과 7단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을 적용해 성능과 실용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i30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디젤모델은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인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는 신규 1.6VGT 엔진에 7단 DCT를 조합한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 또 공회전을 제한하는 ISG(Idle Stop & Go) 시스템을 적용했다.

최고출력 136ps, 최대토크 30.6kg·m로 기존 차량보다 동력성능이 각각 6%, 15% 향상됐다. 연비도 이전 차량보다 10% 향상된 17.8km/ℓ(복합연비 기준)를 실현했다.

동급 경쟁차량인 폭스바겐의 골프 1.6 TDI가 18.9km/ℓ의 연비를 내는 것에 근접했다. 가격은 골프가 3060만원인데 비해 i30 디젤은 2110만~2390만원에 책정됐다.

동력성능과 디자인, 안전·편의사양을 강화하면서 가격이 95만원 인상됐다.

2.0 가솔린 모델의 가격은 1890만~1990만원에, 가솔린 디스럭 모델은 2045만원이다.

신형 i30는 또 조향의 응답성을 높이기 위해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MDPS)의 데이터 처리 단위를 개선했고 블루링크 2.0을 탑재한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새롭게 적용했다.

이와 함께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이상징후를 경고하는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도 기본 적용됐다.

/강승훈기자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에 개관

해외 처음 … 전시·도서관·까페 등 테마 공간

현대자동차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현대차 브랜드를 고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사진)를 개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모터스튜디오는 현대차가 해외에 처음 개설하는 브랜드 전시관이다.

모스크바 중심지 여노브이 아르바트 가에 마련된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현대차의 브랜드 방향성이 반영된 예술작품, 콘텐츠, 자동차 전문 도서관 등을 갖추고 고객응대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는 지상 2층, 연면적 890㎡(271평) 규모로 건물이 대형 통유리로 시공돼 밖에서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현대차의 러시아 대표 판매 모델인 쏠라리스(국내명 엑센트)를 1층과 2층을 잇는 벽체 중앙에 90도 각도로 세워 전시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 전시된 9대의 회전형 제네시스를 잇는 또다른 볼거리다. 지난해 5월 서울 논현동에 개관한 제1호 브랜드 체험관인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개관 9개월 만에 10만명이 다녀갔다.

모스크바관에는 또 방문객이 전시된 차량에 탑승하면 전면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도로 배경 동영상이 상영돼 운전자가 실제 주행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디지털 드라이빙 가상 체험장'이 마련돼 있다.

현대차는 방문 고객을 위해 현대차와 자동차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구루(Guru)'를 배치했다.

/강승훈기자

삼성·LG전자 모바일 시장 '차별화'

갤럭시A5·7 vs G플렉스2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신제품 출시때마다 '최신' '최고' '혁신'을 외쳤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올해 시장 경쟁을 위해 차별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40~50만원 수준으로 가격대를 낮춘 중저가 제품을 선보인 반면 LG전자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프리미엄폰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풀 메탈 바디와 셀프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A5를 22일, 갤럭시 A7을 1월말에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갤럭시 A5'는 126.3㎜(5.0인치)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갤럭시 A7'은 139.3㎜(5.5인치) 풀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갤럭시 A5'와 '갤럭시 A7'은 후면과 테두리까지 일체형 메탈 소재에 각각 6.7mm, 6.3mm의 얇은 두께로 만들어져 감각적인 디자인과 견고한 내구성을 모두 갖췄다.

두 제품 모두 500만 화소의 고화질 전면 카메라를 탑재해 셀프 카메라 기능을 강화했다. 펄 화이트, 미드나잇 블랙, 샴페인 골드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는 '갤럭시 A5'의 출고가는 48만4000원, '갤럭시 A7'의 출고가는 58만3000원이다.

반면 LG전자는 G플렉스2로 승부수를 띄웠다. G플렉스2는 디스플레이의 아래 위가 굽은 형태의 '커브드 디자인'이 적용된 모델로 5.5인치 풀HD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 퀄컴의 64비트 옥타코어 칩셋 '스냅드래곤 810'을 탑재했다. 이 제품 역시 3밴드 LTE-A를 지원한다.

LG전자는 22일 여의도 본사에서 언론공개회를 갖고 사양과 가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성훈기자 yaw@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A5-갤럭시A7

최경량 14인치 노트북 CF 공개

LG전자가 14인치대 국내 최경량 노트북 신제품 '그램 14'의 TV CF를 공개했다.

이 광고는 휴대성과 생산성을 고려해 전작 '그램'의 무게는 그대로 유지한 채 화면 크기와 성능은 향상시킨 '그램 14' 프로젝트의 탄생 계기를 시작한다.

이어 980g의 무게를 비롯한 풀HD IPS 디스플레이 등 전작의 장점과 함께 ▲듀얼 메탈 바디 ▲인텔 5세대 프로세서 ▲10.5시간의 배터리 용량 ▲울프슨 하이파이 오디오 등 그램 14의 새로운 장점이 탑재되는 과정을 묘사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노트북은 고객이 구매 과정에 많은 고민을 하는 대표적인 제품군인만큼 광고 영상 또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배제하고 최대한 직관적으로 제작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의 그램 14는 국내 14인치대 노트북 가운데 가장 가벼운 980g의 무게로 편의성과 사용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카본마그네슘, 리튬마그네슘 등 항공기에 쓰이는 신소재를 활용하여 제품 무게를 최소화했으며 내구성을 강화하고 풀 메탈의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특히 최신 인텔 5세대 CPU '코어 i7'을 탑재하며 그래픽 성능은 기존의 20% 이상, 멀티태스킹 성능도 10% 가량 향상시켰으며 고밀도 배터리 장착으로 사용 시간이 10.5시간 수준이다. /정혜인기자

LG전자, 30마력 가스 냉난방기 출시

4개 용량 풀라인업 구축

LG전자가 30마력 제품 기준 세계 최고 효율의 가스 냉난방기를 선보이며 국내 냉난방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이달 말 가스 냉난방기(가스엔진 구동 히트펌프)인 30마력 '가스히트펌프 슈퍼2'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30마력은 냉방용량 기준 85kW, 난방용량 기준 95kW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용량이다. 국내 업체 중 30마력 제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는 LG전자가 유일하다.

신제품은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고효율의 냉난방기 제품으로 고성능 자동차 엔진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30마력 신제품은 냉방 효율(COP 1.30) 및 난방 효율(COP 1.51)로 동급 용량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달성했다.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모델이 LG전자 30마력 가스히트펌프 슈퍼2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는 히트 펌프의 성능지표로 히트 펌프 구동에 투입한 에너지와 발생한 (냉)열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1.0을 넘으면 투입한 에너지보다 발생한 에너지가 많다는 의미다.

20평 규모 학교 교실 12개를 동시에 냉난방 할 수 있으며 실외기 하나에 연결할 수 있는 실내기도 최대 47개다. 성능은 강화하면서도 소음은 가스 냉난방기 기준 세계 최저인 60dB 수준이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16마력, 20마력, 25마력 등 3개의 가스히트펌프 슈퍼2 라인업을 동시에 출시한 바 있다. 이번 30마력 신제품 출시로 LG전자는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자체 기술로 4개 용량의 풀라인업을 구축했다.

이재성 LG전자 시스템에어컨사업부장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세계 최대 수준의 용량, 세계 최고 효율의 가스 냉난방기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선기자 hyeon@

4배 빠른 'LG G플렉스2' 예약가입 실시

LG유플러스는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 서비스를 지원하는 LG전자 스마트폰 'LG G플렉스2'를 22일부터 예약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약가입은 전국 LG유플러스 매장 및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이달 마지막 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LG G플렉스2' 상용폰을 이달 중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 S-LTE'도 총 2종의 3밴드 LTE-A 단말을 공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3밴드 LTE-A 기술은 2.6GHz 광대역 LTE와 800MHz 및 2.1GHz LTE 대역을 연결해 대역폭을 넓혀 속도를 높이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광대역 LTE와 2개의 LTE 대역을 묶어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최대 300Mbps 속도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KT, 3밴드 LTE-A 'LG G플렉스2' 예약판매

22일부터 단말기 체험

KT는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 서비스를 지원하는 LG전자 'G플렉스2'의 30일 출시를 앞두고 22일부터 올레샵을 통해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약판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예약 개통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G워치R, 톤플러스 넥밴드, 포켓포토2,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제공한다.

또 KT는 G플렉스2 개통 고객을 대상으로 KT 야구단 'KT 위즈'의 로고가 새겨진 7800mAh의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선착순 5000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G플렉스의 올레 액세서리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G플렉스2 단말 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22일 오후부터 광화문 올레스퀘어를 시작으로 강남 올레애비뉴, 해운대 올레애비뉴를 방문하면 KT의 3밴드 LTE-A 서비스 체험이 가능하다.

서도원 KT Device본부 상무는 "KT의 3밴드 LTE-A 상용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G플렉스2를 고객들이 미리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전시와 예약가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스마트폰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현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땅콩회항, 뒤처리는 누가 하나?

기자 수첩
황 찬 수
<산업부 기자>

"니들이 고생이 많다." 2009년 인기있던 개그 코너의 유행어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진짜로 고생이 많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회항시켰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 전 부사장은 사태 수습을 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들의 고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2일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에 출석할 때 사측은 다수의 직원들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시켰다.

조 전 부사장 같은 재벌 3세의 일탈로 인한 직원들의 뒤처리가 처음은 아니다. 신격호 롯데 회장 조카이자 신준호 푸르밀 회장 장남 고 신동학씨의 음주운전사고, 마약, 폭행,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 최철원씨의 맷값 폭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차남의 보복 폭행 등 크고 작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그룹 직원들의 고생은 끊곤 있었다. 사고 치는 사람, 수습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셈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 두 상장사의 시총은 2359억원 감소했다. 유가하락이란 호재 속 주주들은 씁쓸할 따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SK, 현대중공업, 삼성, 한화, 현대 총수 일가 지분율은 각각 0.5%, 1.2%, 1.3%, 1.9%, 2.0%다. 지분에 비해 그들의 영향력은 과하다.

재벌 3세의 일탈에 직원들이 주주들의 이익은 뒤로한 채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회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해야할 직원들이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

'삼성맨'이고 싶다는 사람들

기자 수첩
왕 소 리
<산업부 기자>

그들은 영원한 '삼성맨'이고 싶은 눈빛이었다.

한화그룹으로 매각이 진행 중인 삼성토탈·삼성테크윈·삼성종합화학·삼성탈레스 등 4개사 소속 노동조합과 비상대책위가 21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첫 공동집회를 열었다. 삼성토탈 노조 200여명, 삼성테크윈 지회소속 130여명,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 직원 70여명 등 총 400여명은 한 목소리로 매각 저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그들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산 20조원이 넘는 4개 회사를 1조9000억원에 매각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11월 삼성이 4개사를 매각했을 때 업계와 언론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세계의 기업과 경쟁할 대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것이다.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테크윈의 실적은 삼성그룹 내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어 삼성으로서는 골치였을 터다.

한편 한화그룹은 이들을 인수해 방위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다. 재벌기업 3세들의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본인이 하늘 기업의 색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기도 됐다.

'빅딜'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람'이 간과된다는 것이다. 매각이 결정된 삼성 4사의 직원 8700여명은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한화 사람이 됐다. 기업의 합리성과 효율성 앞에서 노동자들의 운명은 가볍게 움직였다.

직원들의 항의는 당연하다. 삼성은 정년이 60세, 한화는 58세다. 매각 사실도 몰랐던 직원들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2년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삼성맨'으로 누리던 자부심과 복지도 놓아야 한다. 삼성테크윈 노조는 삼성미래전략실과 직접적인 대화를 원하지만 삼성미래전략실은 "이미 매각된 회사의 직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때는 삼성을 위해 울고 웃었던 '삼성맨'들의 목소리가 서초동을 울렸지만 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삼성 신입 채용제도 바꾼다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그룹 신입사원 채용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개편된다.

삼성그룹은 참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시험위주의 획일적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기준에 창의성 토론면접을 추가로 도입 하는 등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의 이런 변화는 현장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 외국어 점수 등 스펙은 배제하고 대신 직무관련 수업이수나 관련 현장경험 등 실무능력 검증 중심으로 채용기준을 바꾸겠다는 것.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을 보면 입사지원자를 실전에 투입할 시 얼마나 직무능력이 출중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직무적합성평가가 추가되고 이 평가를 통과해야 SSAT를 치를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해야 '참의성 토론면접'을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SSAT→실무면접→임원면접' 3단계에서 '직무적합성평가→SSAT→실무면접→창의성토론면접→임원면접'의 5단계로 바뀐다.

지원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논리 전개능력을 평가하는 참의성 토론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의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삼성은 SSAT도 전공을 충실히 이수한 지원자에게 상당한 가산점을 줘 SSAT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출신대학이나 외국어 점수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스펙은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직군별 직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영업직군의 경우 1박 2일 합숙면접이나 종일 면접으로 리더십, 협업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내용, 시간을 직군별로 차별화한다.

이렇게 개편된 채용제도는 지원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 하반기 공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런 삼성의 채용기준 변화는 타 기업에도 영향을 줘 이번 채용방식이 타 기업으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취업전문 기업들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주)코리아리크루트는 '창의성토론면접' 교육프로그램을 내놨다. 이 교육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문제점 발견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발상법, 집단토론 방법과 태도, 전공능력 함양을 위한 습관과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강사진은 삼성, 현대, 엘지, SK등 주요기업 전·현직 인사팀장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코리아리크루트 김덕원 대표는 "학벌보다 능력이 강조되고 있고 자기역량과 강점을 스스로 설명해 보라는 요구"라며 "지원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희망직종을 정하고 확장시점에 그에 맞는 능력과 경험을 미리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성준기자 ysw@metroseoul.co.kr

KT-흥국화재, 운전습관에 따른 보험시대 연다

KT는 흥국화재해상보험과 국내 최초로 운전자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상품을 공동 개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사물인터넷(IoT) 및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사는 한국형 운전습관 연계 보험(UBI) 상품 출시를 위해 공동연구와 상품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KT는 차별 차량에 장착된 IoT 기반의 차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보하고 자사 빅데이터 기술이 결집된 분석 플랫폼 'UBI 솔루션'에서 운전자의 운행패턴을 분석한다. 흥국화재는 KT가 제공하는 운행정보를 활용해 사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UBI 상품을 개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주행기록을 가진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고, 사고확률이 높은 습관을 가진 고객들도 낮은 보험료를 내기 위해 안전한 방식의 운전습관을 가지게 된다.

21일 코오롱그룹 [illegible] 왼쪽 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주현 사무총장에게 희망 나눔 성금 3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코오롱 제공

KT는 이를 통해 결국 차량사고율을 전반적으로 낮춰 사고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1석 2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윤경림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 전무는 "IoT·빅데이터 기술과 보험상품의 융합으로 3000만이 달하는 국내 운전자들에게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해주는 동시에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할 수 있다"며 "차량 무선통신기술 기반으로 스마트파킹, 카쉐어링 등 커넥티드 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연내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illegible]

코오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억9천만원

코오롱은 2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나눔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 가운데 절반은 공동모금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하는 '겨세계 공동 보육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7일에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아대책에 2억9000만원을 기부했다. 코오롱 이웅열 회장은 "경제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요즘에 우리 이웃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나눔 경영을 통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성실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2012년 그룹 차원의 '코오롱사회봉사단'을 창단, 소외 아동들의 꿈을 찾고 키워주는 '헬로 드림(Hello Dream)'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총 1만840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도 기아대책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종훈기자 fun[illegible]

겨울 상품 막판 떨이… 불황에 역시즌도 '한창'

봄신상 출시 앞두고 의류 할인… 계절 잊은 여름제품 불티

유통 업계가 겨울 상품 마지막 물량 떨어내기에 나섰다. 또 불황으로 역시즌 상품이 특수를 누리자 업계가 여름 상품을 할인가에 내놓고 있다. 설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어 저렴하게 쇼핑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릴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옥션은 다음 달 3일까지 '아웃도어 브랜드 시즌오프' 행사를 연다. 이 기간 네파, 밀레, 블랙야크 등 아웃도어 브랜드의 2014 가을·겨울 시즌 상품 물량이 할인가에 쏟아진다.

옥션 측은 "올해 한파가 유난히 길게 이어져 스포츠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아웃도어 의류를 찾는 날이 많아졌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아웃도어 의류를 장만하려는 이들에게 제격"이라고 말했다.

매주 순차적으로 한 가지 브랜드의 특가전을 열고 7개 대표상품은

비롯해 인기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한다.

마리오아울렛(사진)도 지난주부터 쉬즈미스, 슈..., 등 의류 브랜드 겨울 상품을 최대 80% 특가에 내놓고 있다. 해당 브랜드 행사는 22일까지다. 이 외에 2관 2층 특설행사장에서는 네파 패밀리 세일을 이달 말까지 연다.

한편 불황에 여름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몰리고 있다. 실제 G마켓에서 최근 한달 간 에어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8% 뛰었고, 선글라스와 수영복도 각각 35%, 21% 늘었다. 이같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업계도 여름 상품 기획전을 열고 있다.

11번가는 '역시즌 스페셜 세일'을 통해 레이벤 선글라스, '다니엘레이 여행용 캐리어', '핏플랍 뚜무샌들' 등 여름 패션·잡화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의 계절 상품 중심으로 알뜰구매를 위한 역시즌 구매 경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유통 업계도 역시즌 구매족을 겨냥해 이월상품, 역시즌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신세계백화점 명품관에 자전거 매장 첫 선 신세계가 백화점 본점 명품관에 자전거 매장을 백화점 최초로 열었다. 자전거계의 롤스로이드라 불리는 페더슨의 클래식 자전거, 자전거 앞에 어른도 탈 수 있는 큰 카고가 있어 피크닉에 좋은 조니로코의 클래식한 다목적 자전거, 판도롯루스의 디자인과 기술력을 두 가지 다 만족시킨 전기자전거 등을 전시, 관객들 자전거의 변천과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편의점 "묶어 팔고, 골라 담고"

덤 증정 행사 잇따라

단품 위주로 판매해왔던 편의점 업계가 묶음상품, 골라담기 등 대형마트에서 주로 진행했던 덤 증정 행사를 도입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덤으로 얹어주면서 편의점 상품도 저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미니스톱은 이달 말까지 101종의 품목을 대상으로 1+1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덤 행사 품목은 바디오일, 핸드크림, 커커피 등 겨울철 자주 찾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동일한 가격의 같은 시리즈 제품은 교차증정이 가능하다. 올레멤버십 15%할인, OK캐쉬백 1% 적립 또는 15% 포인트 차감할인 등의 제휴서비스 혜택도 적용 가능하다.

남경림 미니스톱 식품팀MD는 "편의점 상품은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며 "고객들이 시기별로 꼭 필요한 상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덤 증정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으니 행사 상품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미니스톱에서도 얼마든지 알뜰 쇼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도 31일까지 과자·음료 등의 행사 상품을 5가지 골라 담아 5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가격과 종류 상관없이 골라 담을 수 있어 정상가 대비 최대 33%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편의점 측은 설명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할인 상품을 구매하면 대형마트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골라 담아 할인 행사는 편의점 인기상품들로 구성한 만큼 많은 고객들이 반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해태 – 농심 '달콤한 감자칩' 전쟁

농심 "한달 86억원 매출" … 해태 "허니시리즈 110억원 판매로 1위"

농심과 해태가 '달콤한 감자칩' 전쟁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성장한 허니버터칩 시장에서 서로 우위라고 주장하며 자존심 겨루기를 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의 수미칩 허니머스타드(왼쪽 사진)는 출시 한달만에 360만봉지가 팔리면서 월간 판매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소비자가격(2400원)으로 환산하면 약 86억원에 달한다.

이는 스낵시장 1위인 농심에서도 최초이자 최고 기록으로, 월평균 60억~7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민 스낵 새우깡을 능가한 것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농심은 수미칩 머스타드의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신제품도 계속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는 지난해 8월 출시한 허니버터칩(오른쪽)과 지난 5월 선보인 허니통통 등 달콤한 감자칩의 1월 매출이 110억원을 돌파하는 만큼 달콤한 감자칩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니버터칩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완판되며 매월 7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허니통통 역시 지난 20일까지 2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달 총 38억원어치가 판매될 것으로 해태제과는 예상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월 매출이 110억원을 넘는 것은 70년 국내 과자 역사상 그 어떤 제품도 넘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경지"라며 "감자칩 시장에서 해태제과가 명실상부한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기자

설화수, 중국 47번째 매장 오픈

설화수가 오는 23일 중국 난징에 대형 매장을 오픈한다.

중국 내 47번째로 오픈하는 매장으로 설화수 제품 판매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 이벤트와 리추얼 서비스로 중국 소비자 공략 나선다.

2012년 22개였던 중국 내 매장은 현재 47개까지 확대됐다. 매출액도 중국 진출 이후 193%까지 성장했다. 특히 매장 5곳은 월매출 1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김수정기자

운동엔 현빈 처럼!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배우 현빈과 함께 한 2015년 봄·여름 아웃도어 화보를 21일 공개했다. K2는 전년보다 눈에 띄게 향상된 기능성과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도심과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신개념 아웃도어룩을 제시했다. /K2 제공

초보 아빠도 '슈퍼맨'으로!

O다리 예방 아기띠·온도 인식 젖병 등 인기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육아에 동참하려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이에 유아 용품 업계가 육아에 서툰 아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면서 주요 소비층이었던 엄마에서 아빠로 확대하고 있다.

토드비는 아이 체형 변화에 맞춰 특허 출원된 단추로 시트폭을 조절할 수 있어 O자 다리를 예방하는 '데일리 아기띠'(사진)를 내놨다. 아이 다리 모양을 M자로 만들어 고관절 탈구를 방지하는 M 메커니즘과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C 메커니즘이 특징인 인체공학적 제품이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아이의 소화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수유를 할 때 온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토미티피의 '클로저 투 네이처 센서티브 스마트 젖병'은 젖병 내부 센서가 온도를 인식해 모유 온도인 37도를 기준으로 색이 변하기 때문에 수유하기에 적합한 온도를 쉽게 알 수 있다. 또 아이 혀의 움직임에 맞춰 설계한 젖꼭지로 아이의 유두 혼동을 방지한다.

물 온도나 눈·코 등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목욕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로고다가 출시한 '베이비 아르 튤레'게 바쓰'는 욕조에 거품을 낸 후 거품 끝에 아이 몸을 담그면 굳이 손으로 몸을 문지르지 않아도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어 단시간 내에 목욕이 가능하다. /김수정기자

'셀카' 찍는 고객 모십니다

유통가 '셀피 마케팅' 한창
젊은 고객층과 소통 강화

최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통해 셀피(Selfie·본인 촬영) 붐이 일어나면서 유통업계가 셀프 카메라를 찍는 고객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셀피는 옥스포드 대학이 선정한 2013년 올해의 단어로, 자신의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갤러리아명품관 식품관 고메이494는 '셀카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갤러리아 측은 담당자가 직접 셀카를 찍어가면서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색인 2700켈빈~3000켈빈의 온화한 색을 잡아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메이494는 일반 식품관 매장보다 조도를 낮추고 고객이 다니는 동선에 따라 빛의 양을 달리했다. 육류와 생선 코너는 500~680룩스(lux·럭스는 촛불 하나의 밝기), 고객이 식사하는 식탁의 조도는 300~350룩스 등이다. 특히 여성 화장실 파우더룸 거울에는 백열구형 LED 전구를 배치해 '사진발'이 잘 받는 공간으로 꾸며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백화점의 설명이다.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뷰티업계 역시 일찌감치 셀피 마케팅에 돌입했다.

더 베이직하우스의 여성 영캐주얼 브랜드 '쥬시쥬디'는 론칭 초기부터 셀피걸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계절마다 자신의 스타일을 잘 표현한 셀카를 선보인 여성들에게 잡지 화보 촬영의 기회를 제공한 것. 이번 시즌에도 총 30명에게 실제 브랜드 모델 기회를 준다. 인스타그램에 #쥬시쥬디셀피걸5 해시태그를 달아 셀카를 올리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참가할 수 있다.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는 30일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3가지 SNS채널에서 '너를 보여줘 셀피' 이벤트를 벌인다.

스킨푸드 제품 사용 후 찍은 셀피를 #skinfoodselfie 해시태그 게재하면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을 얻은 1명에게 브랜드 모델인 이종석의 사인이 담긴 뷰티 캐리어와 스킨푸드의 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SS의 뷰티 시크릿박스' 등 풍성한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셀피는 SNS 시대에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로 젊은 고객층과 소통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마케팅 툴로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계들이 관련 마케팅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강강술래, 명품 선물 증정 이벤트

홈페이지에 신청 글 남기면 다양한 선물 제공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명품선물, 해외여행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이달까지 실시한다.

오는 27일 고양 능봉농원점에 1000명 수용 가능한 갈비전문관 오픈을 기념해 전 매장에서는 클라우드 맥주를 시키면 700만원 상당의 명품 선물 담청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크래치 쿠폰을 1매씩 증정한다.

또 매장에서 명함 또는 이름, 연락처를 적은 응모권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동남아 여행패키지 상품권(2명=동반 1인)을 2등에게는 한우불고기 2호 선물세트(30명), 3등에게는 냉면상품권 1매(100명)를 준다.

이와 함께 와인(카르멘 플렌 블랑) 1병을 시키면 결제 시 와인(카르멘 플렌 카베르네쇼비뇽) 1병을 선물로 제공한다.

한편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삼원온스파의 최고급 온수매트, 명작온천·스파를 즐기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이용권, 스기너의 마지막 강의, 슈퍼 집 스토리 등 컵 1셋의 추천도서를 증정한다.

같은 기간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등등심돈가스(720g=2박스)와 육일자반돈서비아니(360g=2박스)로 구성된 세트를 40% 할인된 3만7200원에, 한우양념불고기(500g=2팩)와 한돈양념구이(500g)로 구성된 나라사랑세트는 약 43% 할인된 4만3000원에 판매한다. /김수정기자 ksj@

이복실 전 차관, 워킹맘 스토리 출간

'여자의 자리, 엄마의 자리' 여성가족부 첫 여성 차관의 기록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난 여자이면서 엄마였다. 여자와 엄마의 자리는 똑같을까? 다를까? 여자와 엄마의 자리, 모두 갖고 싶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싶었다." (7쪽)

여성가족부 최초의 여성 차관을 지낸 이복실 전 차관이 30년 동안 워킹맘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책 '엄마의 자리 여자의 자리'로 펴냈다.

저자는 불량엄마로 살아 온 워킹맘 시절을 담담히 고백한다. 또 스물세 살 행정 고시 28회로 1985년부터 공직을 시작해 다양한 보직에서 우리 사회를 바꾼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두 딸들에게 엄마가 한 일, 엄마가 느낀 모든 것이 담겨 있으며 세상의 모든 딸들이 담당하게 사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다.

저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여성가족부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차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두 딸을 키운 엄마의 자리는 시

엄마의 자리 여자의 자리
카모마일북스 펴냄. 231쪽. 1만3000원

무관에서 여성부 최초 여성 차관까지 오르게 한 원동력이 됐다.

그녀가 말하는 여자의 자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어떤 학과는 여교수가 한 명 있었다고 한다. 남자 교수들이 여교수를 뽑으려고 했더니 그 여교수는 '여성은 나 하나면 충분해요' 하면서 반대했다고 한다. 여왕벌 심리이다. 혼자서만 여왕벌이 되고 싶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을 키우지 않는 것이다." (62~63쪽)

저자는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모신 15명의 여성 장관에게 배운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7가지 리더십'을 추진력, 카리스마, 변화와 도전, 열정, 냉정, 소통, 당당함 등으로 풀어냈다. 실제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를 통해 그 리더십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준다.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알아야 할 여성정책 탄생 스토리도 정리돼 여성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성희롱 신고를 받은 것은 언제부터 인지, 셋다은 제도·아이돌보미 제도·호주제 폐지 등 다양한 여성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차관에서 물러난 뒤 저자는 바로 두 딸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이 책의 원고를 썼다. 부지런하게 자신의 30년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여성과 공직자는 물론 학생, 직장인 등 리더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이 담겼다. /박지원기자

권익위,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국민권익위원회,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투명한 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키로 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위로부터의 청렴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권익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민관유착 비리 등 3대 핵심 부패 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을 척결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누수를 철저히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민원이 곧 국민과의 소통 통로라고 보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 번에 민원을 신청하고 궁금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는 원스톱 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이 주도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소통해미당'도 마련되며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사회적 신뢰 저하가 잘못된 정책에서 출발한다고 판단, 정부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고충민원 처리 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키로 했다.

아울러 계층·지역 간에 대립과 불신을 야기하는 사회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또 권익위는 사회갈등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인후염의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

한국먼디파마,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마케팅

한국먼디파마(대표 이종호)는 인후염 치료제 '베타딘 인후스프레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베타딘 인후스프레이는 포비돈 요오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뿌리는 인후염 치료제다.

포비돈 요오드는 인후염을 유발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적이며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등 7개 균주별 고대배양시험에서 내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간단하게 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도 아래 소아도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먼디파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후염 조기관리의 중요성과 가족을 위한 상비약으로 제품의 효과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한류스타의 대명사인 배우 이영애가 출연하는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이종호 한국 동남아시아 총괄 사장은 "한국먼디파마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컨슈머헬스 사업 분야를 강화해 왔다. 베타딘 인후스프레이가 일상에서 간편하게 인후염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LIG손보, 방문 서비스 '가가호호 캠페인'

LIG손해보험은 새해를 맞아 고객을 직접 방문, 가입된 보험을 꼼꼼하게 다시 봐주는 '家家戶戶(가가호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이 캠페인은 기업 고객을 담당 설계사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다. 지난 한해 동안 이 캠페인을 통해 담당 설계사의 방문을 받은 고객은 20여만명에 달한다. 고객 교류를 지표화한 고객 터치율도 전년 대비 8%가량 상승했다.

올해는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의 ▲가입 상품 보장내용 재설명 ▲신손보험 중복가입 체크 ▲개인정보 업데이트 등도 진행한다.

특히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은 이 캠페인 이후에도 지속 추진된다.

최우협 LIG손보 개인영업총괄전무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을 바라보고 알려주는 것이 이 캠페인의 본질"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이대여성암병원, 암전문병원 부문 수상

이대여성암병원(원장 백남선)이 지난 20일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5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암전문병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병원은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에 시술을 한다는 점과 병원 방문 당일 한 공간에서 진료·검사등 시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대여성암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여성 친화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해 여성암 환자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성만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벤처·중기, 지식산업센터에 사옥 마련 '붐'

분양가·관리비 부담 적고 취득·재산세 등 혜택

#대림건설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로 본사를 옮기기로 했다. 계열사인 대림레저산업이 시행하고 본인들이 시공해 분양하는 '문정역 대림퍼리온'의 일부 층을 사옥으로 직접 사용키로 한 것.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건물이라는 점에서 사옥으로 점찍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가 벤처·중기들의 사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데다,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돼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성수동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이어 지식산업센터 업무지구로 조성 중인 문정지구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800만~900만원 선이다. 문정지구와 마주한 가락동 대로변 오피스의 3.3㎡당 매매가가 170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반값 수준이다.

관리비 역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3.3㎡당 4000~5000원에 형성돼 있지만 일반 사무실은 1만~2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70%까지 4%(변동금리)대의 저리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6년 12월까지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최근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생활밀착형 업무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식산업센터가 식당, 편의점, 병원, 은행, 피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은 기본이고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여가와 쇼핑시설까지 갖춘 생활밀착형 업무지구로 변신하면서 편의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건물 내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기업에서는 별도의 상권을 검토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들의 동선도 짧아져 선호도가 높다. 또 수도권 변두리에 지어지던 옛 아파트형공장과는 달리,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서울 도심에 지어지면서 출·퇴근도 편리해졌다.

이처럼 입지·비용·편의성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산업단지 중 상당수가 지식산업센터에 사옥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110개였던 성수동의 사업체는 2012년 9916개로 22.2%,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사업체는 1만664개에서 1만6534개로 5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사업체수가 8.50%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약 2~6배 높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정지구에서 분양에 들어간 '문정역 테라타워'도 벌써 500개가 넘는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

분양 관계자는 "문정지구가 업무지구로 새롭게 뜨고 있는 데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초역세권 입지와 인근 법조타운,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의 호재에 힘입어 많은 기업들이 사옥 이전 또는 마련을 위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지식산업센터 세금감면 혜택은 최초 분양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분양 중인 곳을 찾아보는 게 좋다"며 "지식산업센터를 고를 때는 비용 절감 외 입지나 분양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ssol920@metroseoul.co.kr

홍대·신사 요우커 효과 임대료 상승 견인

이화여대 침체… 전년비 40% 하락

지난해 4분기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늘어 홍대·신사역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61.1% 증가한 144만여명이다. 21일 부동산114는 같은 기간 서울 상권 임대료가 전분기대비 0.8% 상승한 ㎡당 2만5900원이라고 밝혔다. 홍대·신사 등 대형 상권은 관광객 수요가 증가해 임대료가 상승한 반면 그 외 상권은 매물에 따라 소폭 등락을 보였다.

강남권역은 ▲신사역 3.3% ▲압구정 2.6% ▲삼성역 2.0% ▲강남역 0.2% 순으로 임대료가 올랐다. 신사역과 압구정은 가로수길·세로수길 상권과 청담동 명품거리·의료관광 등이 시너지를 만들어 임대료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낙찰로 주목을 받았던 삼성역 상권의 임대료는 전분기대비 2.0% 상승했다. 올 해 삼성역 상권의 임대료 상승폭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이 2015년 3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현대차그룹 일부 계열사가 한전사옥으로 입주할 예정이라 상권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촌권역은 신촌을 중심으로 홍대가 17.2% 상승했고 이화여대가 12.2% 하락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홍대는 서교동 카페거리·합정·연남동에 걸쳐 상권 활기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쇼핑센터들이 들어서는 등 글로벌 상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신촌 상권이 활기를 조금씩 찾아가는 반면 이화여대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화여대 상권 ㎡당 임대료는 3만2600원으로 전분기대비 12.2%, 2013년 4분기 대비 40% 가량 하락했다. 화장품 업종 밀집 지역 외에는 한산한 모습으로 점포매물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다.

도심권역은 종각역과 광화문이 전분기대비 3.6%씩 상승했고 종로3가는 2.2%, 종로5가 5.9% 하락했다. 영등포권역은 ▲여의도 3.7% ▲영등포시장 -3.2% ▲영등포 -1.9% 순으로 임대료가 떨어졌다. 이 외 건대입구와 이대역 상권은 각각 15.9% 14.1% 상승했다.

경기도는 ㎡당 2만1000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했고 인천은 ㎡당 1만7900원으로 전분기대비 4.9% 내려앉았다. 분당의 임대료는 ▲서현 1.6% ▲야탑 1.6% ▲수내 1.0% 순으로 올랐고 ▲서현 -2.5% ▲미금 6.6%로 뒷걸음질쳤다.

지방은 대구가 5.5% 부산이 1.4% 상승했다. 대전은 둔산동 내 저렴한 매물 출시로 1.4% 하락했다.

/윤희성기자 ksmo@metroseoul.co.kr

대우건설 신입사원 '미생'에서 '완생'으로 대우건설 신입사원 여명이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2주간의 입문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다. 입문교육 마지막날 신입사원들이 인기드라마 미생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작년 전·월세 계약 146만여 건… 월세비중 41%

지난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월세 계약이 10건 중 4건을 차지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전·월세 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46만6566건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졌다. 전년 137만여 건보다도 6.8% 늘어난 수치로, 2011년 이래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이사수요 증가, 신규 입주물량 증가,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자 신고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67만6072건으로 전년보다 5.3%, 아파트 외 주택은 79만494건으로 8.1% 늘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저렴한 일반주택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월세 비중은 사상 첫 40%대를 돌파하며 41.0%를 나타냈다. 2011년 33.0%, 2012년 34.0%, 2013년 3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된 월세계약을 감안할 경우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1만743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는 6.0%, 전월보다는 3.5%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9%와 6.1%씩 늘어난 7만6610건과 4만821건을 기록했다.

전세의 실거래가격은 강남권만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을 뿐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박선옥기자

삼성물산 박동규 차장 2015 세계인명사전 등재

삼성물산 토목엔지니어링본부의 박동규 차장이 세계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자사 시빌(civil)사업부 토목엔지니어링본부 박동규 차장(47, 사진)이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2015년 최신판에 등재됐다고 21일 밝혔다.

박동규 차장은 'PSC교각의 내진 성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등 다수의 PSC교각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일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학회(Japan prestressed concrete institute) 논문상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 차장은 현재 교량 구조분야 입찰업무와 현장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박선옥기자

metro entertainment E

"그리움·애틋함, 제 연기로 누군가 느끼길"

오늘의 연애 히로인 **문채원**

'썸' 다룬 로맨틱 코미디로 색다른 변신
얄미운 캐릭터 공감가게 표현하려 노력

"초등학교 때부터 유달리 내성적이었어요.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봤죠. 뒤돌아 생각해보면 영화가 준 감흥이 컸어요. 한 영화에서 어떤 인물을 정에 매력적인 배우를 보면 어느 순간 그 인물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변신 이야기보다는 그리움과 애틋한 감정이었어요.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를 뽑아서 읽어보니 일주 연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웃음). 자연스럽게 영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닌 생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영화에서 제가 영향을 받은 것처럼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배우라는 직업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적성과 잘 맞을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배우들을 만나보면 많은 이들이 유년 시절 내향적인 성격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함으로써 자신도 일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을 찾게 됐다고도 말한다. 문채원(28)이 바로 그런 배우다.

2007년 드라마 '달려라 고등어'로 데뷔한 후 문채원은 영화보다 드라마를 중심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공주의 남자', 그리고 영화 '최종병기 활' 등 사극으로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만든 그는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굿 닥터'로 깊은 감정을 소화하며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이지만 강한 심지가 있는 여인의 모습은 배우 문채원을 대표하는 이미지다.

그래서 영화 '오늘의 연애' 속 현우를 연기하는 문채원의 모습은 조금 낯설다. 술에 취하면 진상에 가까울 정도로 주사를 부리지만 그럼에도 미워할 수 없는 현우는 문채원의 기존 이미지를 떠올리면 놀라운 변신이다.

"처음 시나리오로 만난 현우는 확 끌리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여우같고 밉상스러운 인물이었죠. 로맨틱 코미디 장르답게 일회성으로 소비될 캐릭터였다고 할까요? 남성 관객은 물론 여성 관객에게도 공감을 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외로움이 많고 정이 고픈 인물로 설정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넣었어요."

'오늘의 연애'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썸'이다. 유부남과의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아파하면서도 정작 곁에서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남자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는 현우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사랑에 솔직하지 못한 요즘 청춘의 모습이 반영돼 있다. 관객 입장에서는 현우가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연애에서는 지나간 사람을 마음속에서 다 내보낸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채원에게도 현우를 이해하며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신과 다른 현우의 감정 앞에서 주저할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현우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어떻게든 관객과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문채원이 배우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바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다. 미술의 꿈을 키워오던 그가 배우의 길을 선택한 것 또한 어린 시절 드라마와 영화 속 인물들에게 감화됐던 것처럼 자신의 연기로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영화 홍보를 위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보여줘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전에 문채원의 마음은 단 하나, 연기를 향하고 있다.

"지금 찍고 있는 영화 '그날의 분위기'는 '오늘의 연애'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에요. 좀 더 평범한 캐릭터라 연기하기가 더 어렵죠. 많은 내공이 필요한 연기죠. 하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같아의 연기만 보여주고 싶지는 않으니까요(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학오드미디어코니_미디어/

star bag

레인보우 완전체로 컴백

레인보우의 소속사 DSP 미디어는 **레인보우**가 다음달 새 앨범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DSP 미디어 관계자는 "이번엔 유닛이 아닌 '완전체'로 컴백한다"며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콘셉트로 대중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전했다.

빅뱅 탑, 아시아 신진 예술가

빅뱅 **탑**이 아시아의 신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탑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탑이 20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샌즈시어터에서 열린 2015 주르댄셜 아이 어워즈에서 비주얼 컬처 어워드 부문(Award for Visual Culture)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가연 "임신 6주째 행복해요"

배우 **김가연**과 프로게이머 임요환 부부가 21일 임신 소식을 전했다. 김가연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신 6주째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건강하게 잘 낳아 키울게요. 늦은 나이라 걱정도 많지만 많은 분이 아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산다라박 한중 웹드라마 주연

걸그룹 투애니원 멤버 **산다라박**이 한중합작 웹드라마 '닥터 모 클리닉'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닥터 모 클리닉'은 사랑을 위해 헌신했지만 제대로 된 이별 수순도 밟지 못한 두 남녀의 상처와 치유에 관한 이야기다. 상대역은 배우 김영광이 맡는다.

신하균·장혁·강하늘 파격 변신

영화 '순수의 시대'서 불꽃 연기·3월 개봉

신하균·장혁·강하늘 주연의 영화 '순수의 시대'(감독 안상훈)가 오는 3월 개봉을 확정했다.

'순수의 시대'는 전쟁이 난무하고 자기 왕좌를 둘러싼 모략이 끊이지 않던 조선 초기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찾은 가장 순수한 욕망을 다룬 영화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왕자 이방원이 반대파를 숙청하고 권력을 손에 넣은 '왕자의 난'으로 기록된 139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하균은 장군 김민재 역을 맡았다. 여진족과 왜구 등 끊임없이 위태로운 조선의 국경선을 지켜낸 공로로 군 총사령관인 판의흥삼군부사의 자리에 오르지만 정작 자기자신의 욕망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물이다. 난생 처음 느낀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위험을 감수한 채 순수를 쫓게 된다.

장혁은 이방원을 연기한다. 고려 충신 정몽주를 척살하는 등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손에 직접 피를 묻혀 조선을 개국했지만 당연해 보였던 세자 자리에서 밀려난 것은 물론 개국공신 책봉에서도 제외된 채 왕좌를 향한 야망을 불태우는 인물이다.

강하늘은 태조 이성계의 사위이자 정도전의 외손자이며 김민재의 아들인 진 역을 맡았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만한 위치에 있지만 부마라는 지위 때문에 관직에도 오를 수 없고 기방 출입조차 자유롭지 않아 출구 없는 일상을 육체의 욕망만을 좇아 타락하는 인물이다.

이들 세 배우는 이번 영화를 통해 기존에 보여준 적 없는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세 남자의 선 굵은 드라마가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온라인 핫 이슈

연인 정은우-박한별 "스키장서 첫 키스"

배우 정은우가 박한별과의 러브 스토리를 공개했다.

20일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서 정은우는 "박한별과 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를 같이 할 때는 감정이 생길 겨를이 없었다. 촬영으로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가 끝난 뒤 스쿠버다이빙 모임에서 박한별과 친해졌다. 박한별의 내숭 없는 모습에 반해 사귀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우는 첫 키스는 언제 했냐는 MC 이영자의 질문에 "사귄지 보름 뒤 스키장 산책로에서 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박한별과 정은우는 지난해 24일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종영한 SBS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에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장병호기자

극장가 울리는 뜨거운 부성애

'인터스텔라' '국제시장' 이어 '워터 디바이너'

최근 극장가의 화두는 뜨거운 부성애다. 오는 28일 개봉을 앞둔 영화 '워터 디바이너'가 '인터스텔라'와 '국제시장'에 이어 부성애 열풍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인터스텔라'는 가까운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 가족과 떨어져 우주로 떠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1000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SF 장르를 내세운 영화는 그 속에 끈끈한 부성애와 가족애를 담아 예의보다 국내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국제시장'도 부성애를 내세워 1000만 관객을 돌파, 순조로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렸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영화 '워터 디바이너'는 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의 묘지에서 발견된 한 장의 편지가 바탕이 된 실화극이다. 5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참혹했던 갈리폴리 전투 이후 실종된 세 아들을 찾아 호주에서 머나먼 땅 터키를 찾아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렸다.

아이들의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쉬힌 기억을 누비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부성애를 담았다.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러셀 크로우가 주연과 연출을 동시에 맡아 화제를 모았다.

/장병호기자

콤비 정만식·김정태 '욕' 배틀

'헬머니'로 코믹 호흡

정만식

'7번방의 선물'로 웃음을 선사한 배우 정만식·김정태가 영화 '헬머니'(감독 신한솔)로 다시 뭉친다.

'헬머니'에서 정만식은 영화의 주인공인 욕쟁이 할매의 첫째 아들 승현 역을, 김정태는 둘째 아들 주현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승현은 어릴 적 맘 웃길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인물이다.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집에서는 장모에게 끝없이 무시당하지만 그저 웃어 넘기야만 하는 웃픈 캐릭터로 직장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주현은 마흔 살이 넘었음에도 '인생은 한 방'이라는 생각으로 가족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막무가내 철부지 아들이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전망이다.

'헬머니'는 전국 각지 욕의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설을 가릴 '욕 배틀'을 펼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오는 3월 5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김정태

주검으로 돌아온 딸,
엄마의 복수가 시작됐다!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비밀
매주 {월~목} 오전 9시40분 tvN

황정음 "7개 인격 중 신세기 맘에 쏙~"

지성 "진정성 담으려 노력" MBC '킬미힐미' 긴장감 고조

배우 황정음·박서준이 MBC 수목극 '킬미 힐미' 신세기의 매력에 빠졌다.

신세기는 극 중 차도현(지성)의 7개 인격 가운데 하나다. 혈투를 좋아하는 신세기는 '킬미 힐미' 시청자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드라마 기자간담회에서 황정음은 "나도 신세기 인격을 갖고 싶다"며 "신세기는 오리진(황정음)을 좋아해 따라다닌다. 나 좋다는 남자 마다할 수 없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시청자 입장에서도 신세기는 싸움을 잘하는 인물이라 드라마 틱해서 좋다"고 이유를 보였다.

박서준도 이날 신세기를 인상적인 인격으로 꼽으며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게 됐는데 신세기는 순수하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며 "조금 미치면 세상이 즐겁다는 말이 있다. 신세기라면 가능할 것 같아 부럽다"고 이유를 말했다.

신세기로 분한 지성은 "신세기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나한테는 여러 가지 숙제가 생겼다"며 "지금은 인격마다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7개 인격 각각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건 차도현에서 나온 인격"이라며 "차도현 위해서 준비한 것도 있다. 재미만 주는 드라마가 아닌 천하고차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킬미, 힐미'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는 재벌 3세와 정신과 의사의 로맨스. 이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지성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눈빛과 말투가 보는 재미를 더한다는 호평과 함께 작품은 주목받고 있다.

/권보람기자 sssch83@metroseoul.co.kr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다비치 새 앨범 '다비치 허그' 발표
데뷔 8년 만에 첫 쇼케이스·팬미팅

여성 듀오 다비치가 새로 태어났다.

다비치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새 미니앨범 '다비치 허그'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데뷔 8년만에 처음으로 쇼케이스를 연 다비치는 이날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해리는 "쇼케이스도 처음이고 오늘 저녁에 있을 팬미팅도 처음이다. 무척 떨린다"고 말했다. 강민경은 "뮤직비디오 해외 올로케이션으로 촬영했는데 이 역시도 처음"이라며 "처음인 게 무척 많다. 데뷔한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다비치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발라드곡 '또 운다 또'와 신나는 미디움 템포의 '행복해서 미안해' 두 곡을 타이틀로 정했다.

이해리는 "'행복해서 미안해'는 다비치의 색깔이 많이 묻어있다"며 "하지만 노래 자체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타이틀곡으로 가자고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두 개의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5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엔 다비치의 자작곡도 실려 있다. 이해리는 잔잔한 기타 선율이 돋보이는 어쿠스틱 발라드 넘버 '너에게 둘', 강민경은 따뜻한 봄에 대비되는 차가운 이별을 가사로 표현한 격정적인 발라드 '봄'을 만들었다.

강민경은 "이전보다 앨범에 참여를 많이 했다"며 "회사 측이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다. 덕분에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앨범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지원기자

강민경 이해리

'나가수3' 열풍 다시 본다

그룹 씨스타 효린과 스윗소로우가 MBC 새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3'의 음악적 다양성을 보장했다. 두 팀은 비슷한 경쟁 음악 방송인 KBS2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

21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나는 가수다3' 제작발표회에서 효린은 "'불후의 명곡'에선 씨스타로 활동하면서 보여주지 못했던 매력을 보여주려고 했다"며 "이번엔 '불후의 명곡' 때 못 보여줬던 걸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다양한 장르와 무대를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여 기대감을 높였다.

효린·스윗소로우뿐만 아니라 '나는 가수다3'에는 양파·소찬휘·하동균·이수, MC 겸 경연 참가자 박정현이 함께 한다. 보컬리스트 7팀을 구성해 음악적인 부분을 강화했다.

강영선 PD는 "지난 시즌보다 음악 방송에 더 가까워졌다"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30일 오후 10시 첫 방송.

/전효진기자

클래식으로 만난 한·일 '하모니'

SIMF 31일 예술의전당서 연합오케스트라 콘서트

한국·일본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만나 환상의 하모니를 연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오푸스가 주관하는 서울국제음악제(SIMF)는 오는 31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한·일연합오케스트라 '하모니' 콘서트'를 연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2015 서울국제음악제는 '조화와 혁신'을 주제로 일본을 비롯해 핀란드, 폴란드 등 해외 연주자들과 함께 기존의 곡을 재해석한 무대와 새로운 곡을 선보이고 있다. 한·일연합오케스트라 공연은 올해 서울국제음악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일연합오케스트라는 세이타로 이시카와의 지휘 아래 류재준의 서곡 '장미의 이름'과 드보르작 교향곡 '신세계'를 연주한다. 또 양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 첼리스트 레이 츠지모토가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을 협연한다.

SIMF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공연"이라며 "문화적 조화는 물론 양국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SIMF는 22~24일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용인 포은아트홀,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랄프 고토니와 핀란드의 타피올라 신포니에타는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7번을 연구해 만든 완성판을 아시아에서 초연한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첼리스트 박나영이 랄프 고토니와 베토벤 삼중협주곡을 연주할 계획이다.

25일엔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베토벤 이스터 페스티벌과 교류 음악회를 통해 대표 연주자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아가타 쉬체스카(Agata Szymczewska)가 앙상블 오푸스(백주영·권혁주·김상진·박나영·김민지)와 실내악의 진수를 뽐낸다.

28일 일신홀에선 새로운 연주자를 발굴하는 라이징 스타 시리즈로 공연이 열린다. 이날 무대는 피아니스트 김준희와 박종해가 라흐마니노프 곡을 연주한다.

/김숙희기자 angie@

조영철·이근호·이정협 중 원톱은?

오늘 오후 4시 30분 우즈벡과 8강전…슈틸리케 감독 고민

조영철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 나선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2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호주 멜버른의 렉탱귤러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2015 호주 아시안컵 8강전을 치른다.

조영철(카타르SC), 이근호(엘 자이시), 이정협(상주 상무) 가운데 누가 최전방에 나설 공격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센터포워드로 나선 공격수가 누구인지에 따라 전반적인 전술 색깔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호주에 입성한 뒤 네 차례 A매치에서 공격수 세 명을 최전방에 번갈아 투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지난 4일 평가전에서는 이근호, 10일 오만과의 A조 1차전에서는 조영철, 13일 쿠웨이트와의 2차전에서는 이근호, 17일 호주와의 3차전에서는 이정협이 선발로 나섰다.

조영철은 오만과의 1차전에서도 최전방을 누볐고 결승골까지 터뜨렸다. 이근호는 쿠웨이트와의 2차전에서 센터포워드로 선발 출전했으나 득점 기회를 자주 놓쳐 아쉬움을 자아냈다.

호주와의 3차전에서는 타깃형 스트라이커 이정협이 최전방으로 나섰다. 이정협은 골 냄새를 잘 맡아 득점에 유리한 위치를 잘 찾아가는 본능을 앞세워 드문 기회를 결승골로 연결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는 다시 볼 점유율을 높여 공격진들이 전방에서 많이 활동하는 스타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영철이 센터포워드로, 손흥민(레버쿠젠), 이근호, 남태희(레퀴야)가 2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맞춤형 전술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호주전과 같은 전술로 이정협이 부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 미드필더 듀오로는 기성용(스완지시티), 박주호(마인츠)의 출격이 유력하다. 연이은 부상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는 박주호를 대신해 한국영(카타르SC)이 출전할 수도 있다.

왼쪽 풀백은 김진수(호펜하임), 오른쪽 풀백은 차두리(FC서울)나 김창수(가시와 레이솔)가 맡는다.

이근호

센터백은 부상을 털어낸 김주영(상하이 둥야)이나 옐로카드가 한 장 있는 장현수(광저우 푸리) 대신 김영권(광저우 헝다), 곽태휘(알힐랄)가 맡을 수 있다. 골키퍼는 넘버원으로 떠오른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 유력하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기성용·차두리 아시안컵 베스트 11

조별리그 최고 활약 선수

한국 축구 대표팀의 기성용(스완지시티·사진)과 차두리(FC서울)가 2015 호주 아시안컵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조별리그 경기가 모두 끝난 다음날인 21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별리그에서 각 포지션 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1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포지션은 4-2-3-1 전형으로 구성됐다. 기성용과 차두리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와 오른쪽 수비수 자리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친 선수로 꼽혔다.

일본은 한국보다 많은 3명의 선수가 베스트 11에 뽑혔다. 혼다 케이스케(AC밀란)가 왼쪽 공격수, 나가토모 유토(인터밀란)가 왼쪽 수비수, 요시다 마야(사우샘프턴)가 중앙 수비수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개최국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는 두 자리씩을 가져갔다. 호주는 골키퍼 매슈 라이언(브뤼헤)과 중앙 미드필더 마시모 루옹고(스윈던 타운)가 선정됐다. UAE는 최전방 공격수 알리 만쿠트(알 아흘리)와 공격형 미드필더 오마르 압둘라흐만(알 아인)이 공격 1, 2선을 휩쓸었다.

이밖에도 중국의 쑨커(장쑤 세인티)가 오른쪽 공격수로, 이란의 모르테자 푸랄리간지(테페란)가 중앙 수비수로 이름을 올렸다.

/장병호기자

강정호 타석수에 최대 '8억' 보너스

600타석 넘겨야…475타석부터 지급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타석 수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다. 475타석부터 보너스가 나오고, 600타석을 넘기면 75만 달러(약 8억1500만원)를 받는 계약이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와 4년 총 1100만 달러(약 119억6000만원)를 보장받았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50만 달러, 2017년에는 275만 달러, 2018년에는 300만 달러를 받는다.

5년째인 2019년 피츠버그가 구단 옵션을 행사해 강정호를 붙잡으면 그해 연봉은 550만 달러로 오른다. 피츠버그가 강정호를 자유계약선수로 풀면 25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 다양한 보너스 옵션을 걸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가 475타석을 넘기면 7만5000 달러를 주기로 했다. 이후 25타석마다 고액의 보너스가 추가 지급된다.

500타석을 넘기면 10만 달러, 525타석을 채우면 10만 달러, 550타석에 도달하면 또 1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575타석에 서면 17만5000 달러, 600타석을 채우면 20만 달러가 추가 보너스로 나온다. 600타석 이상을 기록하면 총 75만 달러를 보너스로 받게 된다.

팀당 162경기를 치르는 메이저리그에서 600타석을 채우는 건 어려운 일이다. 지난해 피츠버그에서 600타석 이상 등장한 선수는 '천재' 앤드루 매커친(648타석)뿐이다.

주전 2루수 닐 워커가 571타석, 유격수 조디 머서는 555타석에 섰다.

75만 달러를 모두 챙기긴 어렵지만, 강정호가 주전 내야수 자리를 꿰찬다면 550타석은 채울 가능성이 높아 37만5000 달러의 보너스를 추가로 손에 넣을 수 있다.

또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가족이 미국과 한국을 오갈 수 있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4회, 5만 달러까지 제공한다. 최대 연봉 6만 달러의 통역 비용도 구단이 지불하고, 영어 강의도 듣는다.

/김용준기자

봉중근 "올해 신무기 장착한다"

LG 스프링캠프 합류

연봉 문제로 서울에 머물던 봉중근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차려진 LG 스프링캠프에 합류했다.

고심 끝에 지난해와 같은 연봉 4억 5000만원에 도장을 찍은 봉중근은 "연봉 협상과정에서의 모든 일은 다 잊었다"며 "이제 스프링캠프에서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다"고 각오를 다졌다.

내년 시즌이 끝나고 나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봉중근은 "현재 우리 팀의 선발진에 두 자리가 비어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가 생겼다"며 "이들의 성향 등을 파악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일본 돗토리 월드윙 재활 센터에서 훈련해 온 봉중근은 "그간 사이판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초점을 맞춰 개인 연습을 했으나 8년 만에 유연성을 키우는 훈련으로 바꿨다"고 소개했다.

봉중근은 특히 "현지에서 요시미 가즈키, 야마모토 마사, 이와세 히토키 등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 투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그들로부터 배운 새로운 구종을 가다듬어 올해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글렌데일에 차려진 LG 스프링캠프에 합류한 봉중근(왼쪽)이 마중나온 양상문 감독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올해 더욱 재미있게 야구를 해 35세이브 이상,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40세이브까지 거두고 나서 나를 신뢰하는 모든 분이 실망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의지도 불태웠다.

/김민준기자 mksun@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1
	8					3		6
6	2			8				
	6			1	8			
		5	9		6	7		
			3	4			1	
				5			8	7
5		6					3	
2			4			9		

			9					8
	9			8	6			3
2		6			7	9		
1		8		7			3	
		9				7		
	2			3		8		6
		3	5			6		2
4			2	9			8	
8					4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엔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왜 호떡집에 불났다고 할까?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호들갑스런 상황을 표현할 때 흔히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고 말한다. 불이 나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호떡집을 대표로 꼽았는지 궁금하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거기까지 굴러온 데는 다 나름의 사연이 있는 것처럼 호떡집에 불났다는 표현이 생긴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호떡은 지금 우리의 대표적인 겨울철 간식이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건너 온 음식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약 100년 남짓으로 개화기 때 한반도로 건너온 중국인들이 처음 만들어 팔았다. 당시 호떡이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 현재의 서울시청에 해당되는 경성부 재무당국 조사에서 엿볼 수 있다.

1924년의 경성에 설렁탕집은 대략 100여 곳이었는데 반해 호떡집은 150 곳에 이른다. 호떡집이 그만큼 번창했다는 것이지만 각도를 바꿔 보면 일제강점기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호떡집 주인을 보는 시선이 고울 수 없다.

또 하나 1920~30년대 신문 사회면에는 호떡집 관련 기사가 많다. 사건사고를 다루는 사회면이니 내용이 부정적이다. 호떡집이 고리대금, 마약거래, 인신매매의 온상이다. 호떡집 화재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그러니 호떡집 주인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쏼라쏼라(算了算了) 거리는 중국말이 시끄럽다고 한다. 원래는 "됐어 충분해"라는 뜻으로 어감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 하지만 의미를 모르면 언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인도 한국말이 시끄러워 두구리두구리 떠든다고 한다. 뜻이 통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 말이건 심하면 귀에는 소음일 뿐이다.

삶의 터전인 호떡집에 불이 났으니 호떡집 주인은 중국어로 다급하게 외쳤겠지만 소통이 없었던 주변사람 귀에는 그저 소란스럽게만 들렸을 것이다. 호떡집에 불났다는 말에는 옛날 시대상황과 민족감정까지도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동갑과 결혼 예정 궁합이 궁금해요
결정했다면 걱정 아닌 지혜가 필요

Q 음여자 여자 85년 01월 28일 오전0시
남자 85년 07월 08일 오전 8시~10시

사주 속으로 애독자입니다. 올해 4월에 결혼식을 하는데 궁합 좀 여쭤 보려고요. 부모님께서 보시긴 했는데 해로하기 어려운 궁합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궁합인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욕심이 많아 셋을 낳고 싶은데 사주에 자녀도 다오나요?? 또한 남자친구가 공무원준비를 하다가 늦게 회사를 들어가 올해 전 1월에 이직을 하였는데 왜 이렇게 직업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직장은 오래 근무 할 수 있을까요?

A 보편적으로 좋은 궁합을 볼 할 때 조건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으며 생활수준이 비슷하며 건강하면 좋은 궁합이라고 하는데 역학적인 측면에서 궁합에는 12지지(地支)에 따른 겉 궁합과 오행에 따른 궁합이 있습니다.

월살이 존재하는데 월살(月殺)은 육체적으로는 성숙했으나 관록과 정신적 측면에서 미완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미완의 상태이니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더 갑비다는 의미입니다. 순수하여 우둔함이 엿보인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연정이나 동정·관용이니 자비가 가득이다 필요한 사람이거는 부족하고 아진과 고집이 세서 대립과 번욕을 자처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내 남자친구 또는 우리 남편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요"라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유아독존의 기상을 꿈지만 더게 좋지 못한 결과를 보기 십상이니 자투 존현되는 인생사에 내용을 참고하면 한결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결혼 예정이라면 더 이상 궁합을 거론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요건 중에 귀하의 경우 이런 요건의 남자라 할지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달리하면 돌리칠 수 있는 상황은 다른 것으로도 전개시킬 수 있으니 걱정보다는 지혜를 갖추도록 하십시오.

운(運)이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인생사라는 노랫말도 있고 평상시 우리가 번 쉬듯이 하는 말로 변화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치는 동안에 자연히 인덕과 행운을 거머쥐는 시기가 올 것이니 단편적인 현상을 결과론에 직결시키지 말고 통상적인 흐름을 감소시키면서 기대되는 성향을 하도록 분발하시기 바라며 다음에도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사

■ 서울시 SH공사
본부장 ▲ 건설사업본부장 장달수 ◇ 처장 ▲ 건설사업처장 김경수
■ KB생명
신임 부사장 ▲소비자보호부 조상득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전략팀장 박종원 ▲ 기획관리팀장 진호준 ▲ 정책통계팀장 박민규 ▲ M&A센터 팀장 오덕근 ▲ 회원서비스본부 명문장수기업센터 팀장 이종엽 ▲ 회원서비스본부 기업협력팀장 유현주 ▲ 회원서비스본부 글로벌성장지원 김인수
■ 근로복지공단
발령직 본부장 임용 ▲ 대전지역본부장 조운철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 사업관리처 경영지원부장 효해근 ▲ 토지판매부장 조해식 ▲ 투자유치부장 이재철 ▲ 주택판매관리부장 이해미 ▲ 보상부장 김준환 ▲ 대외협력센터장 김진석 ▲ 건설사업1처 사업계획1부장 이계희 ▲ 사업계획2부장 박원욱 ▲ 단지설계부장 김해식 ▲ 단지사업1부장 박대현 ▲ 단지사업2부장 권오건 ▲ 단지사업3부장 유명균 ▲ 건설사업2처 주택사업1부장 조용윤 ▲ 시설사업1부장 연이철 ▲ 시설사업2부장 조휘단 ▲ 재산관리부장 이용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장 (보직 전보) ▲ 기획조정부장 전인욱 ▲ 정책협력부장 김병호 ◇센터장/팀장 임명(전보) ▲ 나노바이오측정센터장 이태길 ▲ 측정인재개발센터장 남경화 ▲ 총무복지팀장(경영지원부장 겸직) 류재천 ▲ 정책팀장 성은정 ▲ 대외협력팀장 박주근 ▲ 홍보팀장 홍석현 ▲ 감보건안전팀장 최용석 ▲ 구매자산팀장 염태봉 ▲ 안전보안팀장 한순희
■ 강원지방경찰청
◇경정 승진 ▲ 춘천서 경비교통과장 박인근 ▲ 지방청 수사1과 과학수사계장 박광민 ▲ 삼척서 근덕파출소장 김동준 ▲ 원주서 단계지구대장 김남기 ▲ 원주서 북원지구대 김상수 ▲ 삼척서 수사과장 이영길 ▲ 김화서 여성청소년과 아동보호계장 신동철 ◇경감 승진 ▲ 태백서 장성파출소 이심조 ▲ 춘천서 형사과 정재환 ▲ 원주서 단계지구대 홍석훈 ▲ 화천서 연흥파출소 박찬호 ▲ 지방청 기동1중대 한동우 ▲ 원주서 문막파출소 박상일 ▲ 횡성서 현림파출소 홍은희 ▲ 지방청 112 종합상황실 김계현 ▲ 속초서 서면파출소 고석곤 ▲ 지방청 수사과 전은희 ▲ 정선서 여량파출소 교학복 ▲ 태백서 경비교통과 김경하 ▲ 춘천서 여성청소년과 신재희 ▲ 수사과 송유학 ▲ 원주서 생활안전교통과 김재규 ▲ 지방청 정보과 문유식 ▲ 김화서 중부지구대 김일선 ▲ 춘천서 생활안전과 한원교 ▲ 춘천서 소양로지구대 김가영 ▲ 박기준 ▲ 영월서 영월지구대 유영철 ▲ 원주서 수사과 신강선 ▲ 강릉서 수사과 김덕환 ▲ 홍천서 정보보안과 조병헌 ▲ 영월서 생활안전교통과 손철한
■ 스포츠서울
▲ 광고국장 이명규

부고

▲ 오복남씨 별세, 주재건(공무원)·재강(포스코건설)씨 모친상, 여정우(개인사업)·여경근(협화물력 인사팀장 상무보) 특근화(백두산업)씨 장모상 = 20일 수원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2일, 031-249-7444
▲ 김수길씨 별세, 김홍석(미스터스카이골프 원장)씨 부친상, 권오철(이룸주광 전무)·조일호(한국경제신문 경북부장)씨 장인상 =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2-2227-7500
▲ 김교문(전 감사원 감사위원)씨 별세, 김종돈(르네상스 아틀리에) 종석(현대건설 소장)·은주(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팀장)씨 부친상 =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3010-2261
▲ 임희순씨 별세, 정동철(삼성중공업 스포츠운영파트장)씨 모친상 = 20일 오후, 경남 남해정선공의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055-807-4141

10개 보험사기 조직 적발

최근 3년간 316건 사고 19억원 편취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동안 자광 번 내에 여러명을 태워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10개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고건 중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주범 10명을 포함해 총 51명이다. 이들은 총 316건의 사고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대인합의금) 8억3000만원 등 총 18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적발된 대표적인 보험사기는 두카티·야마하 등 고가 외제 오토바이를 활용한 건이다. 이들은 대당 가격이 최소 3000만원이 넘는 오토바이로 총 58건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해 7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기조직이 주로 지인들로 구성된 점이다.

이들은 주범의 주도하에 자광에 번갈아 탑승해 고의 사고를 반복했다. 주범은 주로 가담자 모집, 차량 운전, 보험금 합의 등을 담당했다. 주요 가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일부 조직은 보험설계사가 고객들과 공모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고객들간 고의 사고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들의 연령은 20대가 44명으로 86%를 차지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인 탑승으로 사기 보험금을 확대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전체 316건중 3인 이상 다수인 탑승건은 161건으로 전체사고의 50.9%를 차지했다. 건당 평균 탑승자도 2.7명에 달했다. 다수가 탑승할 경우 사고당 편취 가능한 보험금이 일반사고의 3~4배에 이르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이 보상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또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렌트카를 주로 이용했다. 전체 사고 중 렌트카 이용 사고는 85건(26.9%)이며, 렌트카 이용 사고의 78.8%(67건)는 3인 이상 탑승자 사고로 확인됐다.

렌트카의 경우 자량구입비, 보험료 등의 비용부담이 없다.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와 보험료 할증도 렌트카 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고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지원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다수인이 가담한 상습적 보험사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khj@metroseoul.co.kr

사재기 담배 인터넷 통해 판매

회사원 검찰 송치

용돈벌이를 할 생각으로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회사원들이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뱃값 인상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골라 팔아온 회사원 우모(32)씨 등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10월부터 '에쎄' 와 '던힐' 등의 담배를 사 모았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씨로부터 담배를 다량 공급받았다. 또 이들은 최대한의 시세차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5% 할인받아 구매한 모바일 편의점상품권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우씨는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자신에게 연락이 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를 했다. 총 1365갑을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163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와 함께 회사원 신모(34)씨와 박모(33)씨도 지난해 11월과 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던힐담배를 모았다. 신씨는 3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4000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원과 13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0·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함종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황재용기자

日 수산물 수입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과 어린이들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수원 유출 자료 '이메일 피싱' 털려

원전 도면 등이 인터넷에 유출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요 자료가 한수원 전·현직자와 협력사 관계자 등의 이메일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수원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범인이 5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한수원 자료의 유출 경위를 대체로 규명했다.

범인이 게시한 자료는 원전 도면 등을 포함해 84건으로 합수단은 작년 8~9월께 범인이 한수원 퇴직자들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퇴직자 주소록을 비롯한 다량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행에는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가는 '피싱'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아울러 원전 도면 등 중요 자료 일부는 한수원의 협력업체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력사 고위 관계자의 컴퓨터가 이메일 피싱 등의 수법으로 해킹되면서 한수원과 공유하던 자료가 넘어간 것이다.

합수단은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뿐 아니라 이메일 피싱으로 자료를 빼돌리는 과정에서도 중국 선양발 IP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북한 측의 소행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서울에서도 'AI·구제역 비상'

일제 방역작업 나서

서울시는 최근 경기도 안성과 이천 등 수도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구제역과 AI가 발생한 후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보건환경연구원 등에도 상황실을 설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에서 사육하는 소 196마리와 서울대공원 내 소규 야생동물 40마리에 대해 채혈 정계검사를 진행해 정계가 없는 동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철새가 주로 찾는 탄천에서도 AI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한강공원을 비롯해 중랑천과 안양천, 청계천 등에서 철새의 분변을 채취해 관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 정부가 가축 이동중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축산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일제 소독과 방역을 시행 중이다.

/황재용기자

/연합뉴스